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Important Moments in Life
(열왕기하 2 Kings 2: 1-11)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어떤 기자가 한 광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소원이 뭐니까?”

“제 소원은 한 번 땅 위에 올라가서 일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 소원은 뭐니까? 너무나도 쉬운 질문인데, 때로 곧바로 대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저거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이, 네가 정말 원하는게 뭐냐? 그래 한 가지만 말해봐라.’ 여러분도 지금 마음 속으로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 원하시는게 뭐니까?

Did you have a great week in God’s grace?

One day, a reporter asked a miner, “What is your wish?”

“My wish is to work on the ground.”

Dear congregation, what is your lifelong wish? This is a simple question, but answering to this seems not so easy. We pray earnestly to God, “Lord, we need this and that.” He replies, “My dear daughter/son, what do you really want? Tell me only one thing.” I want you to think about your own answer to the question. What do you ask for?

아주 오래 전에 어떤 임금님 꿈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3:5-14)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임금님이 대답합니다.

“주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십니다. “네가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없을 것이다.”

A long time ago, God appeared in a king’s dream.

“Ask for whatever you want me to give you.”

The king answered, “Give your servant a discerning heart to govern your people and to distinguish between right and wrong.” The Lord was pleased that he had asked for this. “Since you have asked for this and not for long life or wealth for yourself, nor have asked for the death of your enemies but for discernment in administering justice, I will do what you have asked. I will give you a wise and discerning heart, so that there will never have been anyone like you, nor will there ever be.” (1 Kings 3:5-14)

벌써 눈치 채셨지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연히 지혜를 구했는데, 부와 명예, 호박이 덩쿨채 굴러 들어온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깊이 읽어보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아직 저는 나이가 어려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오랫동안 정확하게 똑같은 기도제목으로 간구 했습니다.

‘하나님, 전 부족합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Probably you've already noticed whom I am talking about. This is a story of King Solomon. As reading this story, it may sound like he only asked for wisdom, but somehow he was also given wealth and honor as well as all the other good things. However, when you carefully read the scripture, you can tell it was not just a coincidence.

“But I am only a little child and do not know how to carry out my duties. For who is able to govern this great people of yours?”

King Solomon prayed this prayer for a long time. ‘Lord, I can’t do anything alone. Grant me wisdom.’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뒤흔든 엄청난 기도입니다. 가끔, 아니요, 너무나 자주, 지혜와 능력의 한계상황에 부딪칩니다. 살다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도 찾아옵니다. 저도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솔로몬을 흉내 냅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목회의 지혜를 주세요.’

This is a mighty prayer that touches the heart of our faithful God. Sometimes, rather, very often, we are faced with problems that are beyond our power or wisdom, with situations that make us totally helpless and hopeless. In such cases, I desperately seek God, just like Solomon did. “Lord, I am only a little child. Please grant me wisdom for this ministry.”

제 힘으로, 부족한 능력으로 어찌해 보려고 하면, 영락없이 번번이 넘어집니다. 놀랍게도 제 나쁜머리를 굴리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해결해 주십니다. ‘Help me, 하나님!’ ‘주님, 도와 주세요!’ 가장 짧고,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Whenever I rely on my strength or ability to solve a problem, I always fail. However, when God intervenes, he solves problems in a way that is much better than what I can ever think of. “Help me, Lord!” This is a short, but very powerful prayer. God never forsakes the prayers of his people who seek him and his help.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왕기상하를 꼼꼼히 묵상했습니다. 책제목 대로라면 열왕기서는 열왕,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열왕기는 두 명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9 장에 스승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 쌍의 황소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 이 정도면 당시에 대기업, 갑부 수준입니다. 느닷없이 엘리야가 자기 걸옷을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뭐 ‘나를 따라와라’ 든지, ‘내 제자가 되거라’ 이런 부르심의 요청이 없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었지만, 엘리사는 하던 모든 일을 중단했습니다.

자기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 갑니다.

As I was preparing for this message, I meditated on 1 Kings and 2 Kings. Both books are the records of the kings in the Israel history, but at the same time, they are the records of two prophets: Elijah and Elisha. 1 Kings Chapter 19 describes the encounter of Elijah, the master, with Elisha, his disciple and servant. Elisha was plowing with twelve yoke of oxen, which shows he was a very wealthy man. Suddenly, Elijah went up to him and threw his cloak around Elisha. He didn't say ‘Follow me.’, nor ‘Come and be my disciple.’ While Elijah did not say a word, Elisha stopped what he was doing and followed Elijah, leaving his oxen and everything else behind.

이 드라마틱한 첫 만남, 그 다음 부분이 참 이상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까지 엘리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저 오늘 본문처럼 엘리사는 엘리야가 뭘 하든지, 어딜 가든지, 끝까지 따라 다녔지요. 정말 신기하게도 엘리사의 행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가 어떤 제자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엘리야의 그림자로 드러내지 않고, 어떠한 영광도 받지 않고 사역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극히 겸손했고, 그의 사역은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됐던 것입니다.

After such a dramatic encounter, the following story is rather odd because there is no mention of Elisha until Elijah was raised to heaven. As we see in today's scripture, we can tell Elisha faithfully followed Elijah wherever he went or whatever he did until the end. But there is no description of what Elisha actually did when he was with Elijah. What does it mean? It reveals what kind of servant/disciple Elisha was. He did his duties without seeking his own name or glory. He was very humble and focused only on God.

‘파레토 법칙’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나라, 어느 단체이든지 20%의 사람들이 80%의 일을 감당합니다. 나머지 80%가 20%의 역할을 하지요. 그다지 건강해 보이지 않지만, 현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마음 같아서는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20%의 어깨 위에 80%의 짐이 지워집니다.

The Pareto principle, also known as the 80/20 rule, explains that 80 percent of work (output) from a given system or organization is done by 20 percent of people (input). And the rest 80% of people does 20% of work. While this may not be a very healthy model to follow, this rule applies to modern churches as well. As a pastor, I hope everyone can work together to build up the church. However, it is reality of our church that 80% of work is done by 20% of people for various reasons.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문제는 반대 있습니다. ‘과연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이 엘리사 처럼 될 수 있는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부름받아 나선 이 몸으로 묵묵히 갈 수 있는가?’ 내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앞설 때,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However, the real problem is not so much about the number as about the attitude of those who serve. ‘Can those who serve a lot in the church become like Elisha? Can they truly serve the Lord faithfully without seeking any glory and honor?’ When serving becomes self-centered, filled with self-righteousness and honor-seeking, troubles surely follow.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까지 철저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니다. 과거 국정원 모토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한다’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땀방울을 닦으세요. 사람한테, 교회에서 영광 다 받으면, 하늘나라에 쌓일 상급을 쏟아 버리는 것입니다.

Elisha's work and ministry was completely hidden until Elijah was lifted up to heaven. The motto of Korean CIA in the past was ‘We work in dark corners/in secret.’ The same should be true with faithful Christians, for whose service and toils, I am very grateful. Serve and wipe your sweat and tears in secret. If you receive all your glory from people and from the church, you are throwing away the heavenly rewards.

엘리사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엘리사는 목적이 아주 분명한 사람입니다. Elisha was a humble person. He also had very clear purpose.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똑같은 내러티브가 두 번 반복됩니다. 짧은 구절 안에 지루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에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베델과 예리고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입니다. 자, 신학생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님 [엘리야]을 데려가시는데 알고 있습니까?” In today's passage, the exact same narrative is repeated twice. We find significance when a boring story is repeated twice in a short passage. There were company of prophets in Bethel and Jericho.

They are today's equivalent of seminary schools. Here, the students ask Elisha, "Do you know that the Lord is going to take your master [Elijah] from you today?"

엘리사는 신학생들의 물음에 왈가왈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과 대화하기 시작했다면, 아마도 엘리야를 따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짧지만, 아주 단호한 말로 대답합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여라." 엘리사는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 받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스승을 따라 가겠다고 결심했고, 끝끝내 스승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Elisha did not argue one way or another to students' question. If he had started talking to them, he would not have been able to follow Elisha. His response is short and firm, "Yes, I know. So be quiet." Elisha was not disturbed by others around him. He had decided to follow his master until the end, and was by [the master] until the last moment.

선지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살짝 비틀면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 선생 엘리야는 이제 끝났습니다.

과거엔 화려했는지 몰라도, 이젠 이빨 빠진 늙은 호랑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뭐 힘들게, 악착같이, 끝까지 따라가려 합니까? 그냥 이곳 선지학교에서 우리와 함께 편안하게 계시지요.' 엘리사는 무엇을 구해야될지, 기도제목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야가 여러 번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기 남아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강으로 보내셨다." 세 번 모두 엘리사의 대답은 한결 같습니다. "여호와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저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엘리야의 승천'이 아니라, '엘리사의 기도' 입니다. 왜 그런지 함께 살펴봅시다.

In a way, the students were saying this. "Your master is now finished. He may have spectacular past, but now he is just an old tiger with missing teeth. Why do you tirelessly follow him? Stay here with us where it's comfortable." Elisha was clear about what he sought. In today's passage, Elisha repeats over again the same response. "Stay here; the Lord has sent me to Bethel, to Jericho, to the Jordan." Elisha's response is consistent for all three. "As surely as the Lord lives, I will not leave you." Now, let's dive deeper into the scripture. I think the main character of today's story is Elisha instead of Elijah. If I were to give this story a title, I would call it "Elisha's Prayer" rather than "Elijah Taken Up to Heaven". Let's see why.

본문에는 4 개의 중요한 땅 이름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길갈' 입니다. 길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처음 진을 쳤던 곳이 길갈입니다. 열 두개의 돌을 세워서 승리를 기념했습니다. 길갈의 원어적 의미는 '애굽에서 당했던 수치가 굴러가는 돌처럼 사라졌다' 입니다.

평소 제가 좋아하는 시 한편 소개해 드립니다.

In today's passage, four important places appear. The first is "Gilgal". What is the significance of Gilgal? It is where Joshua first camped before capturing Canaan. Twelve stones were set up to remember the victory. The literal translation of Gilgal can be interpreted as "the shame experienced in Egypt has disappeared like rolling stones." I would like to share one of poems I enjoy.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놀을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 정호승 시,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

Even blade of grass has scar.

Even flower petal has scar.

Walking the field I walked with you

Watching the sunset from the field

Blades of grass with scars wave

Flower petals with scars are

the most fragrant.

-- Ho Seung Chung, "Even blade of grass has scar"

과거의 수치, 지난 날의 아픔을 치유받지 못하면, 상처난 풀잎, 찢겨진 꽃잎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순간, 또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첫번째 순간이 바로 길갈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길갈에 초대합니다. 우리들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길갈에서 굴려 버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성서학자들은 엘리사가 길갈에 있던 선지학교 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길갈은 엘리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땅입니다. 엘리사가 스승을 대신해서 민족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을 때 꼭 가야될 곳입니다. 길갈은 처음 소명을 받은 곳,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길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If the shame and past hurts are not healed, we are only scarred blades of grass, scarred flower petals. The important moment in our lives, and important first moment in our faith journey is Gilgal. Today, at this moment, I invite our beloved saints to Gilgal. Together, let us roll away our pain and scars. Israelites were circumcised in Gilgal and once again become the Lord's people. Biblical scholars think Elisha is from company of prophets in Gilgal. As such, Gilgal has significance for Elisha. This is where Elisha must visit on his way to becoming the prophet of the nation, in place of his master. Gilgal is first place of calling, place of grace. However, God did not want Elisha to remain in Gilgal.

두번째로 중요한 땅, '베텔'로 인도 하셨습니다. 베텔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마다 찾아갔던 곳입니다. 참 쉼과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하지만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안정과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대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God lead him to the second important place, "Bethel". Bethel is "the House of God". This is where Israelites visited whenever they were troubled and faced difficult problem. This is the God's House, place of true rest. Today, countless Christians are stuck inside church. "What a fellowship, what a joy divine,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However, being a Christian means leaving behind the stability and comfort. It means absolute obedience to His guidance, as God leads us.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한걸 좋아합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졸고 싶고, 그 다음엔 편히 잠들고 싶습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들, 가정과 일터,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베텔은 어디입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돌봐야될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 밖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베델에서 또 다른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Instinctively, the human seek comfort. When standing, want to sit; when sitting, want to lie down; when lying down, want to doze off; then want to sleep comfortably. We want to remain among those who are familiar, home and work, inside church. Where is your Bethel? I hope you venture outside of church. Countless souls needing our care are waiting outside of church. In our lives, experiencing Bethel, the “House of God”, is another important moment; however, God invites us to another place.

세번째로 인도하신 땅은 바로 ‘여리고’ 입니다. 엘리사의 마음 속에,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음 속에도 계속 도전이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 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따라 갈 것인가?’ ‘여기까지 왔으면 충분히 성의 표시는 했어.’ 아니면 ‘계속 변화된 삶을 살 것인가?’ 내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힘겨운 줄다리기를 계속합니다. 여리고는 요단 평원에 위치한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리고 성 안에는 향기 냄새가 진동하고, 야자수 나무가 즐비합니다. 또 여리고는 ‘찬양한다, 예배 드린다’ 는 뜻도 있습니다.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왜 여리고도 떠나야 됩니까? 은혜받고, 성령 체험하고, 신령한 세계를 맛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비체험에서만 끝나면, 나 혼자 잘난 ‘교만의 절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네번째 땅을 경험해야만 됩니다.

The third place He leads us is “Jericho”. In Elisha’s mind, and in our minds today, there is a question that constantly challenges us. “Should I stay here where it is good?” or “Follow until the end?” “I’ve done my part by coming this far” or “Should I continue to live changed life?” We play tug of war between God and ourselves. Jericho is a beautiful land located in Jordan Valley. Inside the walls of Jericho, fragrant scents vibrate and lined with palm trees. Jericho also means “praise, worship”. What’s wrong with praising and worshipping? Why should we leave Jericho as well? Receiving grace, experiencing the Holy Spirit, tasting the spiritual world, are so important. However, once the mysterious experience is over, we fall to “cliff of pride”. We must experience the fourth place.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은 ‘요단 강’ 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소수의 신학생들만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50 명만, 요단강 강가에까지 따라왔습니다. 단 한 명 엘리사만 엘리야와 함께 요단 강을 건너 갔습니다. 50 명의 구경꾼이 있었지만, 엘리사만 요단 강을 건너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갈에서 헌신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여호아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리고에서 벅찬 감격의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입니다. 요단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요단 강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박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The last place God led them was the Jordan River. At that time there were numerous people in Israel. Among them, only few seminarians knew ahead of time that Elijah would be lifted up to heaven. About fifty of them followed him to the Jordan River. From them, only Elisha crossed the Jordan with Elijah. Today’s church is the same. They dedicate themselves and are determined for God in Gilgal. In Bethel, the House of God, they pray asking for Jehova’s will.

In Jericho, they praise and worship with great joy. But that's it. They don't cross the Jordan River. The Jordan River means death. It means crucifying myself on the cross and living a new life with Christ from now on.

우리는 지난 7 주간 연속설교를 통해 ‘철저한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부활의 아침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부활절, 그 다음날’ 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리가 요단 강입니다. 아~ 옛날이여, 화려한 과거, 걸사람의

모습을 벗는 곳이 요단 강입니다. 믿음으로 요단 강을 건너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우리는 때로 요단 강 앞에서 망설입니다. 발목만 살짝 담갔다 뺏다 합니다. 왜요? 한 번 건너면,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입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적당히 살살 믿어. 예수가 밥 먹여주냐? 세상에도 살짝 한 발은 걸쳐야지...’ 요단 강을 건너십시오. 요단 강 저편은 ‘죽음’이 아니라 ‘삶’입니다. 진정한 ‘부활’입니다. 참된 축복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단 강을 건너지 못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강가에서 망설이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For the last seven weeks, we contemplated on the ‘perfect cross’ through a series of sermons. ‘The next day of Easter’ is as important as the morning of Easter. The place where one denies oneself and is in complete obedience is the Jordan River. Jordan River is the place to take off the appearance of our outer person - our old days, splendid past. If we cross the Jordan River in faith, our old persons die and we are reborn as new creature. Sometimes we hesitate in front of the Jordan River. We just repeat soaking our feet a little and pulling them out. Why? It is because we are anxious that once we cross, we may not be able to return to the world again. Satan keeps whispering in our ears. “Don’t take your faith seriously. Does Jesus give you food? You should also keep one foot in the world...” Let us cross the Jordan River. The other side of the Jordan River is not ‘death’. It is ‘life’. It is true ‘resurrection’. Real blessings and peace await you and me. If you do not cross the Jordan River, it is denying the living God. We hesitate on the riverside because ourselves have not yet died.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요단강을 건넌을 때 엘리야가 묻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열왕기하 2:9)

사랑하는 여러분 묻는 시점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묻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대답할 수 있는 물음입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다.” (v.9b, 개역한글)

절대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보다 두 배 더 멋진, 화려한 사역을 원한게 아닙니다.

두 배나 더 되는 성령의 힘으로 엘리야보다 두 배 더 영광을 받으려는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 하심을 받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엘리야라고, 힘들고 지친, 아무생각 없이 드러눕고 싶은 ‘로렘나무’가 없었겠습니까? 그 때마다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신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50 명의 구경꾼은 절대로 구할수 없는 기도입니다. 준비된 사람의 기도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 기도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갑절의 십자가를 제게 허락 하옵소서. 갑절의 순종을 기쁨으로 감당 하겠습니까.

From Gilgal to Bethel, from Bethel to Jericho, and when they had crossed the Jordan River, Elijah asked. “Tell me what can I do for you before I am taken from you?” (Kings 2, 2-9).

Dear fellow Christians, the time of asking is very important. Elijah did not ask it from the beginning. It was the moment that Elisha had been waiting for so long. It was a question that only a prepared person could answer. “Let me inherit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v.9b, Korean Translation) You should never misunderstand. Elisha did not want a splendid ministry that was twice as wonderful as Elijah's. He did not want to be glorified twice more than Elijah with spirit that was twice more powerful than Elijah's. Elijah was a man of God who was thoroughly guided by God. How could Elijah not be sick and tired and not want to rest under a broom tree without thinking about anything? It was the Holy Spirit's inspiration that raised Elijah up each time. “Please double my inspiration”. This was

not a prayer that the 50 spectators ever sought to pray. It is a prayer for a prepared person. Please double my inspiration. The meaning of this prayer is this:

Please allow me to bear a double cross. I will gladly take obedience in double portion.

사랑하는 여러분, 2009년 '허드슨 강의 기적'을 기억하실 겁니다. 뉴욕 라과디아 공항을 이륙한 비행기가 기적으로 허드슨 강에 비상착륙 합니다. 그 비행기 안에는 린다 한 권사님이 타고 있었지요.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쫓다가 수면제를 먹고 자살시도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왜 나를 살려 주셨을까?' 이 질문과 함께 세상과 가족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눈녹듯 사라졌습니다. 짧은 순간, 죽음과 삶을 경험하고, 지금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Dear fellow Christians, I think that you remember the miracle of the Hudson river in 2009. An airplane that departed the New York LaGuardia Airport miraculously succeeded an emergency landing on the Hudson River. A senior deaconess, Linda Han, was in the airplane. After pursuing worldly wealth and honor, she had even attempted to suicide with sleeping pills. "Why did He save me?" With this question, her hate and anger toward the world and family disappeared as melting snow. After experiencing death and life in that short moment, she is now living the life of an evangelis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보면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순간들이 찾아 옵니다. 결국 인생은 이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대답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mportant moments are also coming to our lives as we live. After all, life depends on how we answer to this important moment.

God asks each of you now: "Ask for whatever you want me to give you."

혹시라도 가슴 속 깊은 곳에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픔과 상처가 풀리지 않는 체증처럼 답답하게 꼭 틀어 막고 있습니까? 거기가 바로 여러분의 길갈입니다. 자, 힘차게 길갈의 돌을 굴러 버리십시오.

By any chance, do you have anything that weighs you down deep in your heart?

Do you have any unhealed pain and wounds that are stifling you like heavy indigestion?

Right there is your Gilgal. Let's roll the stone of Gilgal away forcibly.

혹시라도 예배와 찬양의 제단이 무너지셨습니까? 더이상 예배의 감격이 없고, 찬양의 눈물이 메말라 버리셨습니까? 거기가 바로 여러분의 베델과 예리고 입니다. 예배의 영광과 찬양의 기쁨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요단 강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나 대신 사시는 삶입니다. 죽음 같지만, 실상은 생명, 완전한 부활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앞에서 '준비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Is the altar of your worship and praise collapsed? Is there no longer the excitement of worship? Have the tears of praise dried up? Right there is your Bethel and Jericho. I bless you to restore the glory of worship and the joy of praise in the name of the Lord. The most important moment of our lives is the Jordan River. It is the life where I die so that the Lord lives on my behalf.

It looks like death, but in fact it is life, complete resurrection. I hope that you and I become those who offer 'prepared prayers' in the face of 'important moments of life'

English translation volunteers:

Jisook Paik, Hee Sun Chung, Ok-Choon Park, Sehwha Rha